숀지사 "화순 백신특구, K-바이오 국가거점으로 키운다"

도민과의 대화…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약속
광주-화순 광역철도 4차 국가철도망 반영 지속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28일 오후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으뜸전남,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특구를 K-바이오 국가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화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바이오헬스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320억원)과 백신국가 면역치료 플랫폼(480억원) 유치를 발판으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면역 중심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형 첨단의료복합단지 밑그림을 완성했다.

전남은 이미 바이오메디컬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오송·대구·경북 등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비해 최소 비용으로 조기 활성화가 가능하다. 특히 전남-충북-대구·경북을 잇는 비수도권 첨단의료 삼각축이 완성될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의료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중앙부처와 국회,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반드시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겠다"면서 "유치 시 1조원 규모의 국가 의료 연구개발 지원센터들이 들어서 국가 첨단바이오 연구개발, 벤처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으로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주민들은 생활밀착형 민원에서부터 지역 현안과 열악한 SOC 확충 등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주민들은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협력 ▲남도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 개최 지원 ▲폐광지역 대체산업 지원 확대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비 증액 ▲나주 남평-화순 능주 지방도 822호선 확포장 공사 추진 ▲공공미술 프로젝트 확대 운영 등을 요청했다.

화순군에서도 읍내 주거지 주차장 조성 소요사업비 도비 지원(5억원)을 건의했다.

해당 지역은 내년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개원 시 주차장 이용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폐광지역 대체산업과 관련, 김 지사는 "생산감소 등 석탄공사의 경영 악화로 폐광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도 차원에서 지역 지원 방안과 퇴직 근로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 건의에 대해서는 "나주 남평-화순 능주 구간의 교통량 증가를 감안, 도로 확포장을 위해 남평 1.85㎞ 구간 설계를 추진 중"이라며 "10㎞여 잔여구간은 전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해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된 광주-화순 광역철도(5천225억, 12.4㎞)를 지속 건의하는 한편, 경전선 남해안 철도가 화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임후성 기자

전남 4분기 백신 접종 대상 35만6천여명

코로나 치료 병원 종사자 등 5만3천명 부스터샷 계획

전남도가 정부 지침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임산부 접종, 고령층·고위험군 추가 접종(부스터샷), 18세 이상 미접종자 접종 등 총 35만6천명을 도내 위탁의료기관 636개소에서 접종하는 코로나19 4분기 예방 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4분기 예방 접종 시행 계획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접종은 12-17세 9만6천명이 대상이다. 사전 예약 시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다. 예약은 10월5일부터, 접종은 18일부터 진행되며 백신 종류는 화이자다.

임산부 접종 예약은 10월8일부터 진행되며 백신 종류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다.

추가 접종(부스터샷) 대상자는 코로나 치료 병원 종사자,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병원급 이상 종사자로 총 5만3천명이다.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 경과 후 진행한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다.

18세 이상 미접종자 접종도 계속된다. 예약은 30일까지며, 접종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다.

예약은 백신접종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군 콜센터에 하면 된다.

전남도는 10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은 90%, 18세 이상 성인은 80% 접종 완료 목표로 예방 접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며 "전남이 집단면역을 형성함으로써 소중한 일상을 가장 먼저 회복하는 지역이 되도록 도민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방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장성 출신 박노원 전 靑행정관 민주당 입당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의지 밝혀

장성 출신의 박노원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실 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박 전 행정관은 28일 민주당 전남도당을 방문해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민주당에 입당하게 됐다"면서 "당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입당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박 전 행정관은 지난 26일 전북 익산시의 한 식당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입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전 행정관은 입당 시기, 입당 후 역할 등을 두고서도 송 대표와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행정관은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에게도 입당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다"면서 "이 의원이 흔쾌히 승낙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해 주셨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입후보를 위해 민주당에 입당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박 전 행정관은 사실상 장성군수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편, 박 전 행정관은 성산초, 장성중, 금호고, 전남대를 졸업했다. 고등고시 합격 후 기초, 광역, 중앙부처, 청와대의 요직을 거치며 공직 노하우를 쌓았다. 특히 기획, 업무추진, 조직관리 능력이 특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후성 기자

"무등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 마련 서둘러야"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토론회서 조망권 보장 방안 모색

광주시민들의 일조권·조망권 보장을 위해선 무등산 주변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김용집·박미정·김동찬·김광란 의원은 28일 시의회 5층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연구 단체인 '무등산 조망을 위한 도심부 높이 관리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공유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승완 전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동찬 의원과 정윤남 전남대 교수, 신정철 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여 했다.

이번 연구 용역을 제안한 김용집 의원 등 4명은 "최근 들어 무등산 주변과 원도심 지역의 점단위 개발, 원도심의 흔적과 역사를 파괴하는 초고층 주상 복합과 재개발·재건축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일조권·조망권 보장을 위해 무등산 주변 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 시 총괄건축가는 발제문을 통해 주요 선진 도시의 조망권 관리 사례를 언급하면서 광주에 맞는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 광주 조망관리체계와 조망관리 기준 수립의 시급성 등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트윈 등의 신기술을 도시공간 관리에 도입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자들은 "세계 여러 도시들이 각자의 자연 자원과 경관 자원 및 원도심의 조망권을 지키고 있으며 광주의 무등산 경관 조망권도 시민이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원"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미정 의원은 "무등산 조망은 단순히 무등산이라는 실체 하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이야기, 시민들의 삶을 포괄적으로 은유하는 의미"라면서 "이번 토론을 통해 광주다운 도시경관을 디자인하기 위한 높이 관리 방안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정무창 광주시의원, 시도의회운영위원장協 부회장 선출

광주시의회는 28일 정무창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7일 전남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정 의원은 지난 1년 간 시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의회의 화합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역량을 발휘하는 등 지방 의회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정 의원은 "뜻 깊은 일에 앞장서게 돼 기쁘면서도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된다"면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상호협력하면서 지방의회 현안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